

2019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2월>

(주제: 기후변화 대응: 기업의 책임과 역할)

전문가 코칭

기후변화 대응: 기업의 책임과 역할



장 현 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Q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며, 이것이 기업에게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기업을 보는 시각에는 기업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유지되고 성장가능하다는 인식이 뿌리내린 듯하다. 전 세계 GDP의 60%와 자산흐름의 80%를 차지하는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학의 대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역시 “기업은 일반사회와 경제사회의 허락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활동 목표는 단순히 좋은 의도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기업 전략에도 반영되어야만 한다”면서 기업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자선이나 봉사의 관점에서 파악할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이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책임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환경경영’ 두 가지로 요약된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투자자, 근로자,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이 법규 준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도록 압박해 왔다.

즉 기업이 단순한 법규 준수,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약의 차원을 벗어나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품, 생산과정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의 증가에 따라 기업의 환경적 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부정적인 언론보도나 캠페인으로부터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와 같은 무형자산을 보호하려는 기업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Q2.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업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제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기후변화 문제는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기관인 JP모건이 "탄광과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수 백 개의 투자기관들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미루어 보았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경영 전반의 비즈니스 이슈로 보지 않고 단순히 사후적 이슈 대응 측면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은 향후 상당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면에는 사회적 압력이나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보호 이외에도 경제적 실익이라는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 폐기물 감축, 에너지 효율 증가, 오염방지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단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한 중소기업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보다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일 수도 있다.

기후변화는 단지 기업 구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 방식, 산업 구조 및 신사업의 변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접근해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변화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기후변화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미 기후변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기회를 오래도록 향유하기 위한 기업들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생존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빠르게 실천해야 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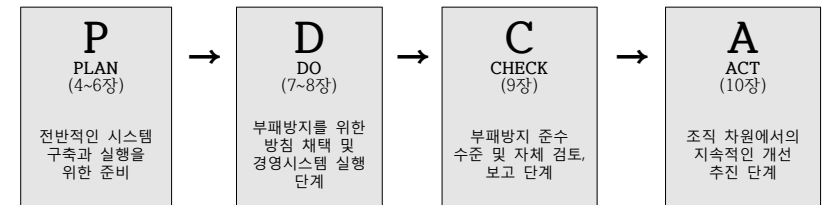
ISO 37001 Study

ISO 37001 가이드라인 총 정리

지난 한 해 동안 <ISO 37001 Study>를 통해, ISO 37001의 개념과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ISO 37001의 내용을 총 정리하며 중요 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37001란?]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2016년 10월 마련한 것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각국 기업이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획/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ISO 37001은 요구사항의 체계적인 반영과 경영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PDCA 모형에 따라 이행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PDCA 항목별 ISO 37001의 주요 내용(요약)]

| |
|--|
| Plan (계획) |
| 4장. 조직상황 |
| ▶ ISO 37001은 부패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조직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상황'을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
| - 조직의 목적에 대한 이해 |
| -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 대한 이해 |
| -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적용범위와 적용가능성 결정 |
| - 기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유무와 개선, 대응 조치 파악 |
| - 부패리스크 식별 |
| 5장. 리더십 |
| ▶ ISO 37001 내 리더십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아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 - 최고경영자 혹은 지배기구의 의지표명 |
| - 부패방지 방침 수립, 유지 및 검토 |
| - 부패방지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부여 |
| 6장. 기획 |
| ▶ 이번 단계는 구체적인 부패방지의 목표와 방법을 기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 |

을 요구합니다.

- 리스크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목표 수립 및 달성 대상, 필요 자원, 책임자, 시기 등을 포함한 사항을 결정한 후, 목표 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획

다.

Do (실행)

7장. 지원

▶ 실행을 위해 조직이 지원해야 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립, 실행, 유지, 보수하는 전 과정에 걸쳐 시간, 인원, 예산 설비를 비롯한 자원 제공
- 역량/적격성(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결정, 고용 절차 및 징계 시 부패방지 방침 및 시스템 준수 요구)
- 인식과 교육 훈련(최신화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
- 의사소통(부패방지 방침 전체를 내·외부 관계자들에게 전달, 소통)
- 위 내용 모두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8장. 운용

▶ 운용 단계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 사전과 사후, 그리고 진행과정 중에 수행해야 하는 총 열 가지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①운용 기획 및 관리, ②실사, ③재무적 관리, ④비재무적 관리, ⑤조직은 물론, 협력사 등을 비롯한 비즈니스 관련자와 관련된 부패리스크 관리 수단, ⑥부패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 ⑦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⑧부패방지 관리의 부적절성 파악 및 관리, ⑨문제, 우려사항 제기, ⑩부패에 대한 조사 및 조치

Check (평가)

9장. 성과평가

▶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행했다면, 이제 이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성과평가는 아래의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주기적인 내부심사
- 최고경영자 검토 및 지배기구 검토
- 부패방지 책임자 검토

Act (개선)

10장. 개선

▶ 평가 단계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다면, 조직은 아래 사항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 시정 조치: 원인 파악, 유사한 부적합 요인의 존재 및 잠재적 발생 가능성 평가 등을 거쳐,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
- 지속적인 개선: 시정조치의 효과성, 적절성 및 충족성을 평가하여 필요 시, 조직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다음 호부터는 'ISO 37001 도입해봅시다!'라는 새로운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당 코너에서는 ISO 37001 적용과 인증을 수행한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향후 ISO 37001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팁과 도입 및 인증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돌보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불안 요소 중 1위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었다. 북핵 등 북한의 위협은 7위에 그쳤다. 중국과 호주 공동연구팀은 동아시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았다. 미국 연방기관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합동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5도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 내 경제적 손실은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며 무더위로 인한 미 남동부 지역의 노동시간 손실이 2100년까지 연간 5억 시간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처럼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위협은 기업의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가 경영활동에서 상당 부분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향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 기후변화 이슈를 기회로 활용한 기업

기후변화 위기가 대두된 이후 초국가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파리 기후협정, 교토의정서 등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시스템과 규약을 만들어 보려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과 더불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들은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원가 절감에 성공하기도 했다.

> 포스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감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중공업은 굴뚝산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거대한 굴뚝들이 연기를 내뿜는 공장단지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굴뚝산업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금속 등을 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료가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대거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철강 산업의 주요 원자재다. 그만큼 경제성을 가진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련 기업으로서는, 석탄 사용량의 절감이 경제적으로도, 대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철강 기업 포스코는 이미 90년대 말부터 다양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에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전 세계 14개 철강사 중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며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는 폐열 활용 기술개발, 기존 용광로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쇠물 제조원가도 낮은 자체 첨단 기술 상용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조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

스로 충당하며 남은 부생가스는 자가발전에도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을 대폭 낮춤으로써 포스코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중공업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기후변화 대책은 경영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범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제도와 정책도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비용 상승은 물론, 경쟁력 약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포스코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 및 투자는 원가 절감과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이케아, 일관된 가치관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

백열전구는 가장 널리 쓰이던 가정용 전기 조명이다. 이러한 백열전구의 치명적인 단점은 낮은 에너지 효율성이다. 무려 95%의 전력이 열로 방출되어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후 등장한 형광등도 에너지 낭비를 크게 줄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LED 조명의 전력 사용량은 일반 백열등의 10%, 형광등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수명 또한 백열등의 수십 배인 약 4만 시간에 이른다. LED 조명 사용으로 엄청난 전력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는 지난해 9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명을 LED 조명으로 전환했다. '많은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일상을 창조하라'는 기업 모토를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보존으로 실천한 것이다. 이케아는 2020년까지 5억 개의 LED 전구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일 5억 개의 LED 조명이 현재의 백열전구를 대체한다면, 파리와 런던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의 연간 전력 사용량만큼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전구 수명 기간 동안 절감되는 탄소 배출 절감 효과는 무려 8000만 톤에 이른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이케아의 성공비결은 가치관에 기반을 둔 경영이다. 심플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 우수한 품질로 대표되는 이케아의 핵심 전략도 '더 나은 일상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기업가치의 실현에서 나왔다. LED 조명 도입 또한 마찬가지다. 이케아의 꾸준한 성장을 견인하는 힘은 지속가능경영과 환경보존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이슈로 위기에 빠진 기업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지라며 피소를 당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패소할 경우 금전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 미국 5대 정유기업, 뉴욕시로부터 피소

2018년 1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열더치셸, 브리티시 페트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정유업계에 투자한 50억 달러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켜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미국 제 1도시인 뉴욕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그 상징성과 무게감이 남다르다.

지난 10월, 뉴욕 사법당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을 왜곡한 혐의로 세계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을 고소하기도 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적 위험성과 탄소 비용

산출 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향후 엑손모빌이 기후변화 관련 비용을 왜곡하지 않을 것과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및 배상금도 청구했다. 환경운동가들 역시 엑손모빌이 에너지 회사인 만큼 더 깨끗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할 이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위와 같은 뉴욕시의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온난화가 재난 수준의 캘리포니아 산불과, 북극의 제트기류 약화로 인한 기록적인 한파를 불러오면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뉴욕시에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결과다. 한편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조율된다면 다시 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지금,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 독일 대기업, 페루의 농민으로부터 피소

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특정 도시나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 피해 또한 초국가적으로 발생한다. 모 국가의 중공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반대편 국가의 이상 기온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들 사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책임 공방은 없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글로벌 대기업이 많은 부국이, 이에 대한 피해는 빈국이 받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2017년 의미 있는 선례가 생겼다. 페루 안데스 고산마을에 사는 농민이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의 에너지 기업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독일의 법원은 이 주장이 타당하다며 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페루의 농민 사울 루치아노 릴루야는 독일의 에너지 대기업 RWE를 상대로 "당신네 회사가 뿜어낸 온실가스로 빙하가 녹아 우리 동네가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쓴 6천 4백 유로(약 830만 원)와 앞으로 들어갈 비용 1만 7천 유로(약 2200만 원)를 청구했다. 법원의 문턱을 넘은 소송은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갔다. 여러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소송은 피해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자 나라가 일으킨 기후변화 피해를 가난한 나라가 감당해야 하는 기후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기후변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의 재난

지난해 7월과 8월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완화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긴급 대책이었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12월, 호주는 49.3도를 기록하면서 1999년 기상관측소 설비 이래 약 20년 만에 최고 기온을 찍었다. 폭염, 산불, 쓰나미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재난의 수준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량은 곧 화석 연료의 사용과 비례한다. 이것은 산업화가 낳은 풍요와 편리함과도 연결되어 있다. 여러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힘쓰고 있지만, 편리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의 상용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범지구적인 협약, 기업들의 노력, 더불어 세계 시민들의 친환경 제품 소비와 에너지 절감 노력이 전부 다 요구되는 이유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 정부,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인류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

-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6273>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96945&plink=ORI&cooper=DAUM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13832>
-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204500003?input=1195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108161>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76843>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7613>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25_0000453660&cID=10101&pID=1010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020900001

윤리연구소-인사이트 +

듀폰, 기후변화 문제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다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 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제조공정에 경제성이 좋은 화석 연료가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환경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시장의 분위기에 난처해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국적 화학기업 듀폰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경영을 표방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국제 환경 기구들의 규약에 적극 협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해 재무적 성과까지 내고 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경제 내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미래 시장에서 친환경 기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듀폰의 역사

듀폰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1955년부터 해마다 발표해 온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기업이다. 1802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듀폰이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며 혁신을 거듭해 온 데 있다. 최근에는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구, 개발하여 제조공정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현대 석유화학의 역사를 써내려간 듀폰의 경영철학이 처음부터 친환경 기조였던 것은 아니다. 화약제조로 군수품을 생산, 납품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꿈의 섬유라 불린 나일론을, 1930년대에는 당시 혁명이었던 프레온 가스를 선보였다.

듀폰이 친환경 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은 90년대 이후 여러 환경 관련 분쟁에 휘말리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6,500만 달러를 들여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의 듀폰 폐기물 매립지를 회복시키라고 명령했다. 듀폰사의 화학성분 폐기물질이 근처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001년에는 가장 잘 팔리던 농약, 벤레이트의 판매를 중단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임신 초기 노출되었을 경우 선천성 안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듀폰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정했지만 거듭되는 민사소송과 기업 이미지 추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 듀폰사의 친환경 경영

2004년 듀폰은 주력 사업이던 섬유 부문을 매각하고 대대적인 업종 전환을 단행했다. 화학 기업에서 생명공학, 산업소재, 전자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과학 기업으로 거듭난 것이다.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펼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에너지 감축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총 에너지 소비량을 90년대 수준으로 유지, 2005년에서 2006년 동안 6천만 달러 상당의 연료와 전력을 저감했다. 2005년부터 2007년 동안에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로 작동하는 증기보일러 설비를 구축해 화석 연료 사용을 4% 감축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 친환경 정책

미국 MIT 경영대학원이 펴내는 학술지 MIT SMR(Sloan Management Review)은 지속가능경영의 사례로 듀폰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한 사업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 매출이 2007년에는 1억 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20억 달러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매출은 두 배로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친환경 경영정책이 듀폰의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 감축 정책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60억 달러 상당의 원가를 절감했는데, 2010년 듀폰의 순이익이 약 30억 달러인 것을 보면 에너지 절감 노력이 재무적 성과 달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기후변화 대응은 곧 혁신의 기회

1930년 듀폰이 선보인 프레온 가스는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안전한 냉동 방법의 보편화로 인해 식중독과 설사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실온에 방치하면 일주일만 지나도 효력이 없어지는 백신의 냉동 보관은 가히 혁신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프레온 가스는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원흉이 되었다. 듀폰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기존 냉매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4세대 신냉매를 출시, 이미 시장점유율 2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 잎 같은 농작물 폐기물로 가솔린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나아가 영국의 다국적 석유기업인 BP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미생물을 이용해 휘발유와 혼합하기 가장 이상적인 알코올이라고 알려진 부탄올 제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의 90%에 달해 현재의 차량 내연기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탄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듀폰은 갈수록 엄격해지는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기조를 미리 내다보고 관련 제품 개발에 몰두했다. 환경 문제로 인한 사업적 어려움을 오히려 제품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은 셈이다.

◎ 규제보다 강력한 비즈니스의 힘

세계기상기구는 2018년의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4위로 높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북극의 해빙 면적 역시 1년 내내 평년보다 적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환경 관련 규제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과 친환경 요소를 모두 갖춘 제품에 대한 시장의 요구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해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다. 따라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이유다.

경제성과 친환경 요소를 둘 다 쟁겨야 하는 기후 대응은 분명히 기업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혁신은 사업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에 성공할 때 시장에서의 성공은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지구에 대한 희망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h t t p s : / / www.sciencetimes.co.kr/?news=%EA%B8%80%EB%A1%9C%EB%B2%8C-%EA%B3%BC%ED%95%99%EA%B8%B0%EC%97%85-%EB%93%80%ED%8F%B0-%EC%B5%9C%EC%9A%B0%EC%88%98-%EC%B9%9C%ED%99%98%EA%B2%BD-%EA%B8%B0%EC%97%8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70602101631731002&ref=dau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4XX46000011#1997306996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9

http://www.ebn.co.kr/news/view/801805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6464

http://imnews.imbc.com/news/2018/econo/article/4992631_22671.html

윤리연구소-보고서 리뷰

기후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

환경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는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특히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주범으로 몰리며 기업시민으로서의 행동을 다하길 요구받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처해있다. 이제 기후변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경영의 화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 리스크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2014)에 게재된 "기후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를 통해 기업의 소싱-생산-유통-소비 가치사슬 전반에 기후변화가 가져올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소싱(Sourcing)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기상이변은 기업에게 있어 원자재 및 각종 자원 이용과 공급업체 관리에 대한 예측과 통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가격변동, 재고품 부족, 영업 손실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다.

| | |
|---------|---|
| 원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고도로 취약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예비 공급원을 확보하고, 대체재를 연구하라. 기후변화에 덜 취약한 지역에 소재한 공급업체를 찾아라. 규제나 금지 조치, 소비자 불매운동의 경우를 대비해 대체물을 찾아라. 규제 동향, 업계 동향, 소비자 동향을 주시하고 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립하라. |
| 자원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싱 과정에서 사용되는 탄화수소 에너지, 농산물, 금속, 수자원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라. 천연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투자하라. 소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라. 규제 관련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발맞춰 사업 계획을 조정하라. |
| 공급업체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 처리, 폐기에 관한 관리방침을 명시한 공급업체 윤리강령을 수립해 집행하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업체와는 거래 단절을 고려하라. 확고한 기후변화 계획을 보유한 공급업체에는 일정한 비율로 업무를 위탁하라. 공급업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업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

*원본 내용 중 핵심 내용만 발췌

#사례: 초대형 유통 업체인 월마트는 공급업체 준수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협력사들이 소싱하는 모든 물자들이 합법적인지, 친환경 제품인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소싱 계획은 공급사슬 내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생산(Manufacturing)

낭비된 에너지와 폐기물은 비용 상승을 일으키며, 정부로부터 규제 조치가 취해지거나 소비자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다.

| | |
|---------------------------|--|
| 시설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고도로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예비 시설과 근로자 수송 체계를 확립하고 소요 비용을 예산에 포함하라.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지역 내 조업을 고려하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잠재적 취약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라. |
| 자원& 대기오염 물질 배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에너지와 비상 급수원을 확보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년 공식적으로 보고하라. 탄화수소 에너지, 수자원 및 기타 자원 사용량을 측정하고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하라.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을 예측하고 제조원가 산출 시 톤당 비용을 고려하라. |
| 폐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 폐기물, 폐기 에너지 발생량을 측정하고 관련 비용을 산출하라. 재료, 에너지, 수자원의 재활용을 평가하고 목표율을 상향 조정하라. 산업 폐기물 재활용 시 단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
| 계약 생산업체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 처리, 폐기에 관한 관리방침을 명시한 공급업체 윤리강령을 수립해 집행하라. 현장 감사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마련하라.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와는 계약 파기를 고려하라. 확고한 기후변화 계획을 보유한 업체에 일정한 비중의 업무를 고정적으로 위탁하라. 계약 생산업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업무 위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

#사례: 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애플컴퓨터는 미국 애리조나 주 메사(Mesa)시에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되는 생산 공장을 짓고 있으며, 스킨케어 브랜드 버츠비의 경우 현재 가동하고 있는 세 곳의 공장에서 나오는 매립 폐기물을 '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 유통(Distribution)

기상이변은 도로와 교량, 항만, 해상항로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지역 에너지 배전망을 마비시켜 소매 및 유통과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대응을 위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다.

| | |
|---------------------|---|
| 해상화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고도로 취약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지 분석하라.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항로를 관리하라.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확인하라. 확고한 기후변화 계획을 보유한 업체에 일정한 비중의 업무를 배정하라. |
| 항공화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업체가 탄화수소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지 확인하라. 배기가스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라. 물류 업무의 비중을 늘려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 연료소비를 줄이기 위해 적하물 무게를 감량하고자 노력하는지 확인하라. 해상운송이나 내륙운송(특히 철도화물 운송) 역시 고려하라. |
| 도로& 철도화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고도로 취약한 지역에 중요한 인프라가 전략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분석하라. 지방 정부 및 관할 기관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필요할 경우 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라. 정부의 인프라 관리 상황에 따라 대체 경로 및 운송 방법을 모색하고 시설의 재배치도 고려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하라. 자사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고서에 위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하라. 고객과의 통신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의존도를 분석하라. |
| 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통신망의 유지보수와 회복탄력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투자하라.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에 맞춰 유지보수 절차를 변경하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에 철저히 투자하라. |

#사례: 영국의 통신업체인 BT는 향후 50~100년 동안 벌어질 홍수 사태를 예측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소비(Consumption)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다.

| | |
|-------------|--|
| 제품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지, 또는 일부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목인지 검토하라. 기업 성장에 이 재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고 대체물을 찾아라. 대량 구매 소비자들을 확보한 경우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급자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에너지 절감 혁신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리더로서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하라. 마케팅, 홍보,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여한 자사의 활동내역을 강조하라. 기후변화에 따른 고객부담 비용과 자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파급되는 다른 영향력을 분석하라. |
| 제품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와 천연자원 소비를 줄여 소비자의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참여를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관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라. 재활용 및 폐기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라. 재사용이 가능한 압축성형용 급속경화 프리프레그(PCM) 소재의 질과 양을 측정하라. PCM 소재 사용을 증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이점을 분석하라.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제품 재활용 시스템을 연구하라. 소비자가 제품 재활용을 더 쉽고 가치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 공공부문, 시민단체와 협력을 모색하라. |

#사례: 글로벌 등산의류 업체인 파타고니아는 일명 '새 옷 사지 말고 헌 옷 사자(buy less)' 캠페인을 통해 과잉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사용한 파타고니아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간 재판매가 촉진되고 있다.

점차 많은 기업들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소비자와 사회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시민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 참고 - 에릭 로유티(Eric Lowitt), '기후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2014년 4월)

뉴스클리프

국내 동향

1. 2019년, 'ESG경영'이 대세

최근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경영이 주요 경영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외식, 식품업계 기업들은 기부활동, 식품전달, 봉사활동 등 추운 겨울을 맞아 나눔을 실천하며 윤리적인 기업 이미지를 적극 어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에만 치중하는 기업보다 윤리적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 세계일보. 2019. 01. 03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03004809>

2. 유통업계, '필(必) 환경' 소비문화 동참

유통업계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친환경 소비 캠페인 실시와 친환경 포장재부터 종이 영수증과 종이 가격표, 비닐 쇼핑백 사용을 없애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홈쇼핑 업계는 친환경 포장재와 재활용 가능한 보냉제로 교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식품 배송 시에도 종이 보냉박스과 친환경 아이스팩, 종이테이프를 활용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과대 포장도 줄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종이 영수증을 없애고, 전자 가격표 도입을 통해 종이 절감과 비효율적인 작업 구조도 개선해 업무시간까지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통가에 부는 친환경 열풍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 뉴스핌. 2019. 01. 1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11000617>

3. 환경부-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이하 KBCSD)가 환경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과 CEO가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화학물질 관리, 미세 플라스틱 전 과정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2019년 주요 환경정책 방향과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기회요인을 함께 고민하였다. KBCSD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혁신기술 세미나'의 환경부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환경정책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 - 국토일보. 2019. 01. 1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63>

해외 동향

1. 중국, 새해에도 "반부패 투쟁 압승"

2019년 새해에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반부패 사정 작업이 강화될 것이라고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언급했던 "압도적 반부패 투쟁 승리"를 강조하면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017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70여 명의 중간 간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24만 건에 가까운 부패 문제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주의 학원 공작조례'를 정식 공포하였고, 시 주석은 반부패 투쟁 성공과 중국만의 사회주의 기초의 지속적 견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반부패 투쟁은 외국 기업들에게도 예외가 없는 만큼,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 세계일보. 2019. 01. 07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07003650>

2. 스페인, '친환경 호텔' 확산

스페인 정부 소유의 고급체인호텔 '파라도르' 97개점이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운영된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파라도르의 오스카 로페즈 아게다 대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지하는 공공기업으로써 우리는 에너지 절약과 책임 있는 소비를 독려하는 표본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페인 거대 전력 공익사업체 '엔데사'와의 협력으로 진행하며 새해부터 파라도르 호텔에 그린에너지로부터 나온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아가 스페인은 2050년까지 모든 전력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경제 활동에서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최근 호텔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경영의 한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참고 - 그린포스트코리아. 2019. 01. 02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04>

3. 지속가능성은 필수, 커피 한 방울의 의미

네스프레소(Nespresso) 커피의 핵심 가치는 지속가능성에 있다. 'AAA 지속가능한 품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를 통해 커피 농부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장기적인 고품질 커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커피 한 잔당 탄소배출량을 약 20%까지 줄였으며, 나아가 2020년까지 500만 그루의 커피나무를 심어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생산-제조-판매-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선도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참고 - 한국강사신문. 2019. 01. 08
<http://www.lectur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1>

국내·외 행사소식

<국내 행사>

한불상공회의소 비즈니스 어워즈 2019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올해의 제품&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

주최 프랑스 상공회의소

일시 2019년 2월 18일

장소 한불상공회의소

<http://www.fkcci.com/ko/evenements/calendrier/event/d/gala-2018-2/>

<해외 행사>

Sustainability Impact Management Summit

업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기업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을 통섭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주최 Corporate Parity

일시 2019년 2월 14-15일

장소 Park Plaza Amsterdam Airport, Lijnden, Netherlands

<https://10times.com/sustainability-management-summit>

World CSR Conference

브랜드 경쟁력과 CSR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제공과 CSR 성공 전략 논의

주최 World CSR Congress

일시 2019년 2월 17-18일

장소 Taj Lands End, Mumbai, India

<https://10times.com/world-csr-confere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mmit

CSR의 잠재적 기업이익과 기업의 지속가능을 가능케 하는 CSR활동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

주최 UBS Forums

일시 2019년 2월 13일

장소 The Ritz-Carlton, Bengaluru, India

<https://10times.com/csr-summit-bengaluru>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한해, 청렴을 향한 다짐

새해를 맞이하는 첫 달이었던 지난 1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관들은 청탁금지법 준수와 더불어 청렴에 대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부산보훈청 및 NH농협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의 경우, 올해에도 매월 반부패, 청렴데이 및 매년 청렴문화주간 역시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남 장성군의 공직자들은 '박수량 백비(白碑)'를 찾아가 공직문화와 조직의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로 참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관들의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을 다짐하는 새해의 서약 의식이 한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387>
- <https://www.ajunews.com/view/20190102160229598>
- <http://www.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54648819548109003>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034#08hf>

문구>

적당한 이미지와 함께 아래 문구를 삽입해주세요.

(아래 이미지와 같은 느낌으로 적당한 이미지 삽입 요청)



평소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있었나요?
질문해주세요!

질문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jykim5@ips.or.kr)

지식 1G

기후금융이란?

[용어 정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지원하는 금융. 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독려하고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

[투자 대상]

탄소배출권거래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건물 냉난방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등 환경 리스크를 줄이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체별 활동]

- *개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금융사가 출시한 기후 관련 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
- *기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린본드(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발행
- *금융기관: 친환경 사업에 여신, 대출, 보증 등을 제공

참고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3/2018042301636.html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1.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것 또한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는데, 우리 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K협회, A연구원

우리 산업계가 아직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부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일환으로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외의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에서는 최근 소비트렌드인 친환경을 고려하여 제품 설계를 하고, 설비 투자 시에도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로 인해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판을 얻어, 경제적 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많은 기업으로 이러한 선순환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 또는 민관 합동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Q2. 귀하가 속한 기업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E컨설팅, B관계자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저희는 고객사의 경영전략 부문 컨설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해보고, 강점과 약점, 위험과 기회요소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고객사에 유익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회사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면서 환경경영 컨설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저희의 업무 자체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환경경영 컨설팅은 고객사의 실질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퀴즈

Q. 다음 중,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업이 얻게 되는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독과점 방지
- ② 에너지 효율 증가
- ③ 오염방지에 따른 비용절감
- ④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보호

● 지난 호 정답 : ④ 번

● 정답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jykim5@ips.or.kr)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자는 김영기 님, 김성 님, 장충희 님, 설재원 님, 이석영 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